

Q & A 상담실

우리 협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용한 질문과 답변을 일부 수록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고통받고 있는 환자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Q. 골반뼈에서 골수를 채취하는 것은 기증자가 기증할 때나 환자들이 골수검사를 위해서 채취할 때나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백혈병 어린이들은 검사할 때 왜 그렇게 아파하는 걸까요? 보통 사람들은 TV에서 환자들이 검사받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아플까 싶어 겁이 나서 기증을 하려는 생각도 못하는데, 그게 뭐가 다른가요?

A. 많은 기증자분들을 상담하다보면, 가장 먼저 질문하시는 내용이 “얼마나 아파요?”하는 통증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마도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텔레비전에 비춰진 환자 특히 어린 환자들이 아파하는 장면을 많이 보셨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방송에 보도되는 장면들은 환자들의 골수검사 또는 척수검사 등을 위해 검체를 채취하는 모습을 방영한 것이며, 검체 채취시 통증조절을 위해서 채취부위에 국소마취를 시행합니다. 국소마취는 의식이 있는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통증 자체보다도 검사과정에서 오는 불안감을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환자들의 경우에 골수검사 등이 한번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며 치료과정에서 여러번 겪게 되는 경험입니다. 또한, 치료의 장기화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이 상당하지요. 그런데, 어린 환자들인 경우에는 어떻게겠습니까? 아픔보다도 하얀 가운데만 보면 물어버리지 않겠어요?

기증자분들의 골수기증시에는 전신마취(또는 하반신마취)가 시행되며, 채취과정에서는 통증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다만, 채취가 끝난 후 마취에서 깨어나면 채취부위의 통증이 발생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진통제로 통증조절이 가능합니다. 채취부위의 불편감은 기증후 3-4일에서 1-2주정도 지속될 수 있으나,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타박상에서 회복되는 과정을 상상하시면 비슷할 것 같군요. 건강하다면 손가락만 베어도 아픔을 느끼지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불편감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골수기증에 동참하시면 고통받고 있는 환자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Q. 골수기증하려고 하는데요, 헌혈 안해본 사람은 할 수 없는 건가요? 헌혈을 꼭 해야만 하는 건가요?

A. 골수기증희망자 등록은 만18세 이상 40세미만으로 특별한 질환 없이 신체 건강한 성인이면 가능합니다. 등록업무는 대한적십자사 혈액원(헌혈의 집)과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혈액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혈액원(헌혈의 집)에서는 헌혈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는 헌혈경험자인 경우에 등록되어 있는 검사결과를 확인함으로써 기증자로서 적합성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 헌혈자 선정기준에 적합

한 분이라면 골수기증자로서도 적합한 신체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인을 위한 헌혈경험이 골수기증에 대한 동기유발 및 기증에 대한 자신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헌혈경험이 없다고 골수기증희망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이번 기회를 계기로 건강하실 때 헌혈에도 동참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Q. 골수기증 등록한 지 2주 넘게 지났는데요, 등록이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알아볼 수 있나요?

A. 골수기증희망자 등록후 개별적으로 등록여부 및 검사결과를 통보하여 드리지는 않으며, 도움이 필요한 환자와 일치되는 시점에서 한국골수은행협회 코디네이터가 연락을 드립니다. 등록후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추후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등록여부를 통보 드리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골수기증희망자 등록후 기증자 인적사항 및 검사결과(조직적합성항원형)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통합관리 됩니다. 따라서, 등록여부 확인 및 주소(전화번호)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등록을 하셨던 대한적십자사,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및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한적십자사 혈액수혈연구원

(골수사업과) : 02-774-8231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 1588-1589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 02-2260-7016

Q. 저는 여자인데 골수기증하면 흉터가 남지 않는지, 그리고 나중에 출산할 때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A. 골수기증은 양쪽 골반뼈에서 채취용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뼈안의 혈액을 기증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사바늘 자국이 보통의 경우에 2-3개 정도가 피부에 생길 수 있으며, 채취후 3-4일 정도가 지나면 딱정이가 생기고, 1-2주정도가 지나면 딱정이가 떨어지면서 원래의 피부상태로 회복됩니다. 피부에 상처가 생기거나 헌혈 후 주사자국이 없어지는 경우를 상상하시면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수술용 칼을 이용하여 절개한 후 봉합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흉터가 생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골수기증 후 소실된 혈액은 3-4주후면 원상회복이 되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골수기증을 반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골수기증이 출산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의 혈연 또는 비혈연(타인) 골수기증자 중 상당수가 여성입니다.

♣.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의견 주시고, 궁금하신 내용을 질문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